

원도심 활성화 규제개혁 '첫발'

전주시, 역사도심지구 건축 용도제한 폐지로 다양한 업종 입점 가능

전주시가 시청 주변 및 풍남문, 영화의 거리 일원 상가의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문,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 6323㎡의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계획을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주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 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

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해당지역에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제한 폐지로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

종 등 건축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배회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장은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스포츠관광 선도' 전주 여행상품 개발 착수

전주시,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 관광상품 개발 용역 추진

전주시가 아시아 프로축구클럽 순위 1위에 빛나는 전북현대모터스FC와 프로농구 명문구단인 전주KCC이시스농구단의 연고도시답게 스포츠를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에 나섰다.

시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및 관광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활동에 그치지 않고, 오락적 기능과 도시 통합 기능,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

어 도시발전을 꾀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주시의 특화된 스포츠산업을 발전시켜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건립중인 복합스포츠타운과 프로구단 등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과 스포츠관광 상품개발을 연구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과업에 △전주시 스포츠관광 자원 현황 정리 및 발굴 △복합

스포츠타운 및 프로구단과 연계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단기 및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등을 담기로 했다.

시는 용역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체육 및 관광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와 더불어 전주시의 스포츠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북도장애인복지관, 도내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추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은 도내 장애예술인을 발굴 및 모집하여 작품 저작권료 및 전시 등을 지원하는 아트클라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예술창작가 아트클라보지원사업'은 도내 아마추어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선정하여 저작권계약을 통해 소정의 저작권료(1작품 당 20만)를 지원하며,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선정작품은 복지관 온라인전시관을 통해 홍보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청 기획전시실 및 전주지역 갤러리 등에 실제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하세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긴박한 상황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서비스로, 구급대원이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파악하고 출동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이다.

특히 신고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인적사항, 지병, 복용 중인 약 등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어 독거노인이나 뇌졸중, 협심증, 심

근색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필요하다.

또 가입자에게 사고가 발생 시 환자를 이송하면서 보호자에게도 문자메시지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 병원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신청은 본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능하며 119안심콜서비스 홈페이지(www.119.go.kr)에 접속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자 연락처, 개인 병력 정보 등을 입력 후 가입하면 되고 정보는 소방청 안심콜 수해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안전하게 이용된다.

/양은경 기자



탄소중립 거리 캠페인 전주시는 2일 탄소중립 시민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실무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오거리문화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탄소중립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바람 복지 · 탄소중립 미래환경 조성

전주시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서 복지 · 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서부권 복합복지관과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고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2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을 통해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탄소중립 미래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 · 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인복지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자립기반 확충 △여성 · 아동이 존중받는 복지환경 조성 △탄소중립 선도 및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 △안전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도약하는 전주동물원 등이다.

또 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교육 · 복지 · 고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통합형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거점시설인 장애인일자리 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장애인 가족돌봄의 고충 해소를 위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과 자립희망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동시에 시는 여성들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창업보육실과 창업컨설팅 지원 등 여성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전주만의 특

색이 있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대형놀이터 조성과 돌봄시설 확충 및 연장 운영 확대 등 여성과 아동이 존중받는 복지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600여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4970대)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2800대),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과 탄소중립 시민교육 강화 등 탄소중립 사업에도 집중한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탄소중립 미래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 환경 정책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 기반 마련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완산구, 시민 맞춤형 민원 시책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시대와 세대에 발맞춘 능동적 민원 시책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힘을 기울인다.

완산구는 올해부터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식 작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출생 · 사망신고서 등 시민들이 자주 이

용하는 대표 민원서식 10종을 QR코드로 제작하고, 제작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민원서식 작성방법과 예시 이미지로 바로 연결되어 복잡한 민원서식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동완산2, 동서학1, 대성1)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맞춤형 소송 행정을 펼친다.

완산구는 사무소 운영으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

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시민이 원하는 친절 · 신속 ·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 실시, 민원담당자 업무 연장,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전산자료 정보 제공을 통한 소유 찾기 등을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시민의 불편을 살피고 적극 공감하여 따뜻한 소통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아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